

경제 활력대책 회의
20-2-3 (공개)



연안여객 · 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

2020. 2. 5.

금융위원회 · 해양수산부
한국산업은행 · 해양진흥공사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연안여객·화물선박 현황	2
III. 연안여객·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	3
IV. 향후 계획	7
V. 기대 효과	7
VI. 참고 자료	8

I. 추진배경

- 국내 연안여객은 도서지역 내륙이동과 관광 등을 위해 연간 약 1,500만명(18년말 기준) 여객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주요 운송수단
 - 100개 항로에서 58개의 해운사가 166척의 여객선을 운항하며 차도선·카페리 등 여객·화물 겸용선이 70%를 차지
 - * 연안여객선 분류 : (여객선)21척, (쾌속선)28척, (차도선)106척, (카페리)11척
 - 최근에는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도서지역 축제 활성화로 섬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여 여객선의 역할이 더욱 부각
- 화물 선박운송의 경우 전체 국내 화물운송량의 82%*(무게기준)를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필수 기반산업
 - * 국내 화물운송량('17년, 백만톤) : (철도)31.7, (해운)142.6, (항공)0.3
 - 780개의 해운사가 2,013척의 내항화물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예인선, 부선 등 소형선박이 68%를 차지
 - * 내항화물선 분류 : (화물선)356척, (유조선)291척, (예인선, 부선 등)1,366척
- 이러한 내수선박의 중요성에 불구, 연안 여객·화물선박 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 등으로 노후선박 교체용 선박 신조에 애로
 - * 20년 초과 선령 비율('18년말 기준) : (연안여객선) 22%, (화물선) 68% 수준
 - 현재 운영 중인 연안 여객선박의 경우 상당수가 노후화된 해외 중고선으로 구성

⇒ 연안 해상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

II. 연안여객·화물선박 신조 관련 현황

① 연안 여객에 대한 안전성 강화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는 확대

- 연안여객선의 경우 선령제한 강화(카페리선의 경우 최대운항 가능 기간 30년 → 25년)등으로 선박 교체 수요가 크게 증가
- 최근 수요조사 결과, 선박 신조에 따른 자금부담 경감을 전제로 약 59척(선가 기준, 약 8,200억원)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※ 연안여객·화물선박 해운사 대상 수요조사 결과

- 여객선 : 21척(선가 기준, 6,089억원), 화물선 : 38척(선가 기준, 2,142억원)

* (조사기간)'19.11~12월, (조사방법)한국해운조합 수요조사, 산은 현장인터뷰 등

② 반면, 해당 해운사들의 영세성 등으로 은행 등 민간 선박금융 공급은 수요 대비 충분하지 않은 상황

- 현재 일부은행을 중심으로만 연안여객·화물선박 신조 관련 금융 취급
- 내수선박 신조 시 민간금융의 낮은 담보인정비율(LTV : 통상 선가의 약 50% 내외) 등으로 해운사들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이 큼
- 내수선박 신조 필요 자금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해운사들의 영세한 재무구조* 등으로 자금 조달에 한계

* 연안여객 해운사중 절반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, 업체당 평균 보유선박 2.3척

③ 재정사업을 통해 연안여객·화물선박 신조를 지원하고 있으나, 지원 규모 등에서 수요 충족에 한계

- 연안선박 현대화펀드* 등 재정사업을 운영 중이나 수요조사 결과 나타난 선박 교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

* '16~'19년간 출자규모 1천억원, 카페리 선박 4척 既 지원

III. 연안여객·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

◇ 연안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은행,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「연안여객·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」 마련·추진

① (지원 대상) 노후화로 선박 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·화물선박

○ 노후화된 여객선 및 화물 선박

- 「해운법」상 내항여객운송업 및 내항화물운송업 면허 보유 해운사가 신규 발주하는 선박

* '18년말 기준, 내항여객운송업 58개사, 내항화물운송업 780개사

○ 해상 안전성 제고라는 지원방안의 취지 등을 감안, 신조를 원칙으로 하되 선종에 따라 중고선 지원 가능

- 원칙적으로 선령제한 연한 도래 예정 선박* 우선 지원

* (연안여객선) 선령 20년까지 운항가능하며, 1년씩 연장가능(카페리 최대 25년)
(내항화물선) 선령 15년 초과 선박의 화물운송사업 신규등록 제한

② (지원 규모) 선박 교체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한, 충분한 지원

○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, 총 8,2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 마련

i) (연안여객선) 6,089억원 (21척 x 척당 평균선가 290억원)

ii) (내항화물선) 2,142억원 (38척 x 척당 평균선가 56억원)

< 선종별 수요조사 결과 >

연안여객선			내항화물선
카페리	쾌속선	차도선	화물선
9척(3,579억원)	5척(2,220억원)	7척(290억원)	38척(2,142억원)

③ (지원 방식) 재무구조가 영세한 해운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자기부담금 최소화 등 자금 부담 경감

○ 산업은행·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·대출 등을 통해 연안여객·화물선박 신조 대금의 80%를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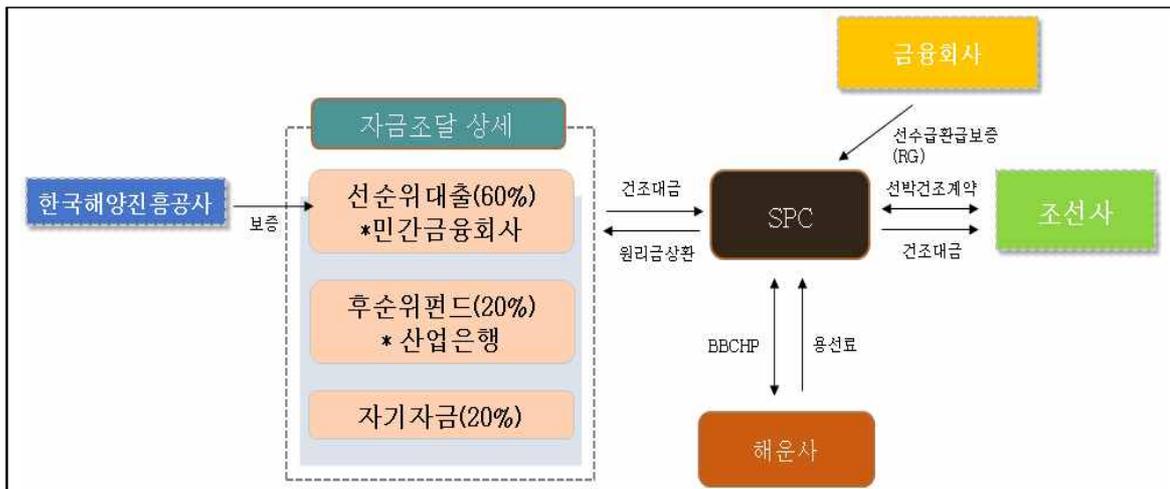
i) (선순위 60%) 신조 대금의 60%를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진공이 同 자금의 95% 이상에 대하여 보증 지원

* 연안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, 낮은 신용등급 등을 감안하여 보증료 특별요율 적용, 보증료 분납기준 마련 등 별도 특례 추진

ii) (후순위 20%) 신조 대금의 20%는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

iii) (해운사 20%) 신조 대금의 20%는 해운사 자체 부담

< 신규 지원방안 구조 >



○ 해운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만기 16년의 장기금융 지원

- (선순위)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(1년 거치 이후)

- (후순위) 해운사의 재무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만기일시 상환

< 별첨 > 기존 연안여객·화물선사 지원 정책

①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사업(해수부)

- (사업 목적) 연안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모태펀드 방식으로 출자하여 건조 지원

* 지원근거 : 「해운법」 제38조·제39조(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)

- (지원 대상) 「해운법」상 내항여객운송업 및 내항화물운송업 면허 보유 해운사의 신규건조 카페리, 초쾌속선 및 LNG추진 화물선

- (지원 규모) '16~'19년간 출자규모 1천억원으로 카페리선박 4척을 既 지원하였으며, '20년 예산규모는 530억원

- 금년 예산(530억원)으로 총 5척의 연안여객·화물선박 지원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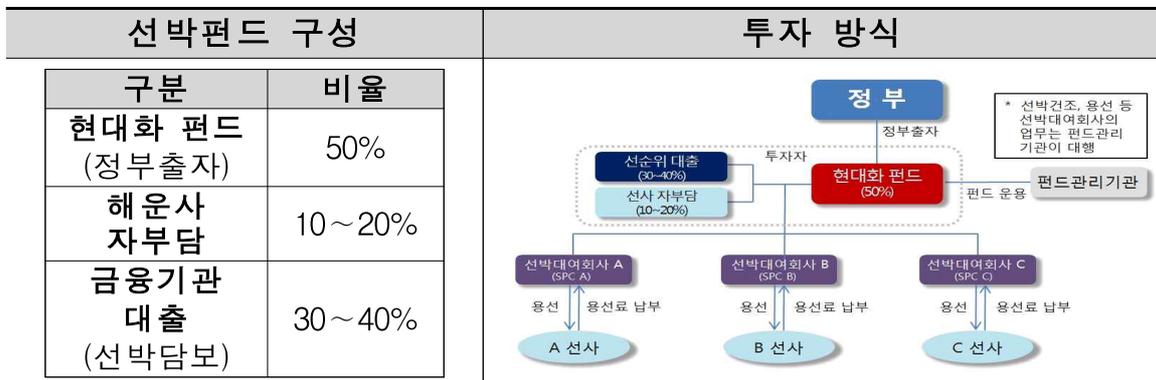
* '20년 예산 530억원 : 카페리(2), 초쾌속선(2), LNG화물선(1) 건조지원 계획

- (지원 방식) 현대화 펀드(후순위)가 선박 대금의 50%를 지원, 금융기관 대출(선순위) 30~40% 및 해운사 자기부담 10~20% 부담

i) (선순위) 민간금융기관과 해운사 간 선박담보부 대출계약 체결

ii) (후순위) 3년 거치 12년 균등분할상환

iii) (해운사 자기부담) 신조 대금의 10~20%는 해운사 자체 부담



< 별첨 > 기존 연안여객·화물선사 지원 정책

②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(해수부)

- (지원 대상) 「해운법」상 내항여객운송업 및 내항화물운송업 면허 보유 해운사 및 선박대여업자가 신규 건조하는 선박
- (지원 규모) '13~'19년간 예산 약 392억원으로 총 112척(대출액 5,072억원)*을 既 지원하였으며, '20년 예산규모는 147억원

* (건조 완료) 80개사 107척(여객선 40척, 화물선 34척, 유조선 33척)

** (건조 중) 4개사 5척(유조선 5척)

- 금년 예산으로 10~15척의 연안여객·화물선박 지원 예정

- (지원 방식) 해운사가 이차보전사업 수혜기업으로 선정 시 내항여객선·화물선의 신규건조 대출자금 금리 2.5%를 지원

* 예) (총 대출금리) 3.5% - (이차보전) 2.5% = (해운사부담 이자율) 1%

③ 연안화물해운사 유류비 보조사업(해수부)

- (목적)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(리터당 345.54원) 보조로 내항화물운송업계의 재정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

* 지원근거 : 「해운법」 제41조제2항

- (지원 기준) 유류세 보조금 = 주유량(ℓ) × 지급단가(현재 리터당 345.54원)

* 지급단가(원/ℓ) = 현재 경유유류세(원/ℓ) - '01.6월 당시 경유유류세(183.21원/ℓ)

- (지원 규모) 최근 5년간('15~'19) 예산규모 약 1,250억원(연평균 250억원)을 지원하였으며, '20년 예산규모는 약 252억원 수준

- (사업 절차) 분기별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신청(화물해운사) → 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(지방해양수산청) → 보조금 지급(지방해양수산청)

IV. 향후 계획

- 연안여객·화물선박에 대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기구를 구성,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대상을 선정
 - 산업은행·해양진흥공사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연 2회*,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「지원대상 심의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 추진
- * (年 상/하반기) '20년 3월 및 9월 중 산업은행 및 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 공고 예정
-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해당 해운사의 신조 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사업 추진
- 기존 재정사업(해수부)의 집행성과 등을 점검하고, 펀드 출자규모*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해 '21년 예산 규모 검토 추진
- * (당초 출자계획) '16~'19, 1,000억원 → (수정계획) '16~'23, 2,000억원

V. 기대 효과

- 해상안전 확보 및 연안해운업 경쟁력 제고
 - 노후 선박의 신조 교체로 해상여객·운송 안전성 제고 및 운항서비스 품질 향상
- 연관산업 고용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
 - 해운서비스 등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
 - 최근 연안 관광수요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신조를 통한 여객선 현대화로 지역도서 관광업 활성화에도 기여

참 고**연안여객·화물선박 신조 수요조사 결과**

□ 조사결과 : 59척, 8,231억원(선가 기준)

- 현재 민간 선박금융의 낮은 담보인정비율(50%), 초기 자기 자금 부담 과다 등으로 노후 선박 교체 지연중
- 기존 재정사업의 규모가 부족하고, 지원방식의 한계점* 보완 필요
 - * 해운사가 신조대금 중 자기부담분(10~20%) 이외에도 상당 수준 (30~40%)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민간금융회사 등에서 조달
- 선가의 80% 수준 장기금융 공급시 신조 수요의향 표시

□ 조사 내용

- 조사기간 : '19.11.01 ~ '19.12.06
- 조사대상 : 연안여객해운사, 내항화물해운사
- 조사방법 : 한국해운조합 수요조사, 산은 현장 및 전화조사

< 선종별 세부 수요조사 결과 >

(단위 : 억원)

선 종		척 수	선 가
여 객 선	카페리	9	3,579
	쾌속선	5	2,220
	차도선	7	290
	소 계	21	6,089
화 물 선	화물선	38	2,142
합 계		59	8,231